

2014 년도

시 정 방 침

이치카와시장 오쿠보 히로시

오늘, 2014 년 2 월 시의회 정례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2014 년도의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의 심의를 부탁드림에 있어 신년도의 시정운영에 임하는 소신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머리

작년 11 월에 집행된 이치카와 시장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신임을 얻어 시정을 계속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장 취임 이후 시민의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삼아 항상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생각하면서 시정운영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견을 받은 것, 시정전략회의 등 시민위원을 포함한 심의회로부터 제언을 받은 것, 그와 더불어 시민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에 가능한 참가함에 따라 널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시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2기째의 시정운영에 있어서도 1기째와 변함 없이 지금과 같은 자세를 굳게 유지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의 불황으로 세수입이 늘지 않아 고민하던 가운데 증대하는 사회보장비와 지속사업의 비용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해 왔습니다.

이치카와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에 애착과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사업 억제라는 방침을 전환하여 장래에 포석을 깔아 두는 시책,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교육도시에 걸맞는 윤택함과 따뜻함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실현을 위해서 제가 내거는 2기째의 이념은 아름다운 경관조성입니다. 이치카와다운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에 따라 도시의 매력을 향상시켜 이치카와시가 더욱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시정운영의 기본방침

신년도는 2기에 접어드는 실질적인 출발을 뜻합니다. 또, 1934년에 시제(市制) 시행으로부터 80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조상들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의 이치카와시의 발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 가는 것이므로 장기적이면서도 계획적인 행정운영이 중요합니다. 시장취임 후에 저는 종합계획 제2차 기본계획이라는 10년간의 계획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는 기본계획에 표명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 2 차 실시계획이 시작되는 해가 됩니다. 또한, 모토야와타역 북쪽출구 A 지구 시가지 재개발 등 지금까지 우선해 온 주요한 건설사업의 완수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지역조성을 추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인구감소가 현저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수입을 토대로 한 시책을 전개하는 한편 생산연령인구를 감소시키지 않는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년도의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3 개의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의 첫번째는 아름다운 경관의 지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과 행정의 협동에 따라 지역의 수준과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시내의 경관을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감각적인 것을 초월해 어딘가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지역의 경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을 만드는 우리들은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의 미의식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과의 협동으로는 어떠한 것이 가능할까요. 정원에서 화초와 수목을 키우고 지역의 청소에 참가하고, 바깥에서 보는 집의 외관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가지의 전경으로 시야를 넓혀 역 앞과 도로 등 공공의 공간에서 경관을 의식한 행동을 취하는 등 일상생활 중에서도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시민 및 사업자와 협동하는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행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친근한 경관에 대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시민이 바라는 경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에게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들음으로써 살아 보고 싶고 앞으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지역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기본방침 두 번째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따른 복지확충과 생활의 안정입니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인생 90 년의 시대가 됩니다. 이것은 의학의 발달, 공중위생의 발전, 높아진 건강의식, 생활환경의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이 가져다 준 실로 기쁜 결과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자가 지역과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해 가겠습니다.

저출산이 계속되는 지금 어린이는 그야말로 지역의 보배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해 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민간의 힘도 활용하면서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금 의료, 개호, 육아 등에 관한 사회제도가 크게 변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4 월부터 소비세율이 인상되며 이것을 재원으로 삼아 사회보장제도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행정운동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겠지만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면서도 적절히 대응해 가겠습니다.

기본방침 세 번째는 행재정개혁에 의한 안정경영의 실현입니다.

일본의 경제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느끼는 생활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경기회복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세율의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의 저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세입에 큰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교부금 등이 세율의 개정에 따라 증가하지만, 사회보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세출증가도 예상되므로 힘든 재정상황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로 삼은 미래 도시상에 근접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재정개혁대강 제 1 차 행동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경영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경영개혁실을 신설하고, 경영주체의 민영화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 도매시장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영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보육원은 이미 지정관리자제도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7 개 보육원 중 신년도말에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4 개 보육원에 대해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또, 급여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인사급여제도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재건축과 수리 등의 재원에 도움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에게도 약간의 고통분담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 수혜자 부담도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화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10년 앞을 내다본 지속가능한 시정운영을 목표로 하여 용기를 가지고 행정개혁을 신속하고 강단 있게 실행해 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치카와시의 장래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상의 실현을 위하여(중요한 시책)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실시할 신년도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종합계획 제 2차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인 “안심할 수 있고 쾌적하며 활기 넘치는 지역”에 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의 교육행정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장이 “교육행정 운영방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안심할 수 있는 지역조성

먼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조성에 관해서입니다.

따뜻함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와 건강, 육아 등 생활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방재 및 방범대책과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고령화율이 2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강장수사회의 실현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 단체 및 행정의 협동을 통해 복지 커뮤니티의 확충을 도모하는 지역 케어시스템의 추진과 삶과 일 모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또, 장보기 등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맡을 인재로 기대되는 NPO 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특별양호노인홈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고령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단말기에 착목하여 그 활용에 관한 새로운 IT 강습회의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해 실시되는 시책으로는 위암위험검진 및 소아 폐렴구균백신의 예방접종을 계속 시행함과 동시에 고령자에게 질환위험이 높은 폐렴을 예방하는 고령자 폐렴구균백신에 대해서도 공적비용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육아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임해 왔지만, 새로운 보육수요의 발생에 맞추어 향후에도 꾸준히 대처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인가보육원의 정비와 인가 외 보육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가정보육제도의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유치원 등의 입원을 비롯한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안내하는 “육아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상담체제의 확충을 도모하고 보육시설 대기아동의 해소 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보육원에 대한 보조제도에 관해서는 보다 현재상황에 맞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육아의 정보교환과 육아상담의 장인 지역 육아지원센터의 확충과 아동학대대책, 통학로의 안전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모일 수 있는 “(가칭) 노천어린이광장”에 대해서는 민간 유휴지 등의 활용을 검토하는 등 보호자의 요망에 맞춘 육아 지원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2015 년도부터 실시되는 어린이 및 육아지원제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치카와시 어린이 및 육아지원 사업계획”을 책정하겠습니다.

이번 연도말에 폐원할 토카기 유치원에 대해서는 발달 장애아에 대한 지원과 보육클럽(방과후 아동보육) 등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로 수리공사를 하여 2015 년도의 개설에 맞추어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소비세율의 인상에 있어서는 저소득자와 육아세대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하는 등 임시복지 지급금 및 육아세대 임시특례 지급금이 지급되므로 이것을 확실히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수도직하지진 등의 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의 태풍 26 호에 주택침수와 도로침수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천의 치수대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시가지의 침수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대책으로는 이치카와 미나미 배수지구의 오와다 펌프장 등의 건설공사와 코야 및 타지리 배수지구의 배수로 등의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바라키 지구 등의 치수 안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의 방책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에 마련하여 피해 경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등의 재해시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신이 차단되어 인터넷 환경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지도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방재 어플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관리체제의 정비 및 소방력의 강화에도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의 범죄건수는 감소경향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법대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내의 편의점 부지에 전국에서 최초로 방법박스가 치바현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의 자주방법활동에 대한 지원과 민간자율방법순찰 등의 실시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카와시의 공공시설 대부분은 고도경제성장기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맞추어 건설되었습니다. 이들 공공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유지수리비가 증가되는 것과 갱신시기가 집중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자치단체의 경영이라는 시점에서 종합적이면서도 통괄적으로 기획, 관리 및 활용하는 구조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년도에는 시설의 진료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공시설백서를 작성하겠습니다.

(2) 쾌적한 지역조성

다음으로 쾌적한 지역조성에 대해서입니다.

풍요로운 환경,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도시기반의 정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문화, 스포츠, 환경의 각 시책을 펼쳐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친절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주택을 중심으로 한 품격 있는 주거환경조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가지 전체의 경관까지 시야를 넓혀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수렴하면서 이치카와만의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이 될 가드닝 시티 이치카와에서는 지원자와 원예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시민과 사업자와의 협동을 통해 주요도로와 역 전 광장 등에 있는 화단의 유지관리와 시내 원예 이벤트의 개최 등 꽃과 녹음이 풍부한 지역조성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고품격의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실천으로 배리어프리, 방재성 향상 및

에너지 절약 등 주택의 양질화를 추진하는 안심주택 추진사업과 빈집의 적절한 관리를 촉진하는 사업 및 아파트관리사의 파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와 도로 등 쾌적한 지역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여 풍요로움과 따뜻함이 있는 지역 실현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하수도는 공중위생과 수질보전으로 기능함으로써 이치카와시의 매력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책정 중인 하수도 중반기 비전에 입각하여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건전한 경영기반으로 하기 위한 공영기업회계로의 이행 준비 및 자산운용의 도입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치카와시의 남북 도로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3, 4, 18 호의 정비사업은 2015 년도말의 완성을 목표로 용지확보와 축조공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외환도로에 접속되는 도시계획도로 3, 4, 12 호와 도시계획도로 3, 6, 32 호는 조기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도로의 환경을 개선할 좁은 도로 대책사업 및 진심을 담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력속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장기유지보수계획을 토대로 14 개 교량의 실시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풍부한 감성을 키우는 문화시책으로는 시민회관의 재건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진행함과 동시에 히가시야마카이이 기념관에 인접하는 토지의 일부를 녹색화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이치카와시의 역사를 후세에 계승하기 위해 이치카와시의 역사편찬을 진행 중이며 신년도에는 사진도록을 간행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은 일본 전역에 감동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치카와시의 북동부에서 유럽의 명문클럽인 아스널 풋볼클럽의 축구학교가 개교합니다. 이로 인해 축구를 비롯한 시민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지금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북동부의 축구장을 비롯하여 주변에 스포츠 시설을 정비하는 스포츠타운 구상을 책정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환경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주택용 태양열 발전시스템 및 주택용 에너지절약설비의 설치비용을 계속 보조하며 더불어 보급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으로 폐지류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시청의 본청사는 환경을 배려함과 동시에 시민의 편의성과 시민 서비스의

향상, 방재거점이 되는 안전성을 견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사의 재건축은 기본구상을 토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치카와시는 지금까지 여권사무의 권한이양을 요청해 왔고, 최근에 치바현은 이 업무를 이양한다는 내용을 표명하였습니다. 업무이양 준비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 등에서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연수를 강화하고 실시내용을 시청 방문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친절한 시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활기 넘치는 지역조성

중요한 시책의 마무리는 활기 넘치는 지역조성에 대해서입니다.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살린 토지이용의 유도 및 지역경제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치카와시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도시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갖추어 동시에 여성이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지역과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새로운 역의 설치를 포함하여 검토가 진행중인 무사시노선 주변의 새로운 지역조성에 대해서는 스마트타운의 개념을 도입한 토지이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도로휴게소 정비사업은 외환도로의 개통시기를 고려한 오픈을 위해 민간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휴식, 정보소개, 지역의 연계 및 방재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시설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또한, 코쿠부가와 조절연못 상부활용사업에서는 나카이케 광장의 정비공사를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과 더불어 도메키야즈 주변까지를 이치카와의 매력 포인트로 활용하기 위해 코즈카야마 공원의 정비계획을 진행하고, 호리노우치카이즈카 공원과의 통일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시오하마 지구에 대해서는 시민이 바다와 친근해질 수 있는 수변공간의 정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치카와시오하마역 남측 약 12 헥타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인가 취득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 호안 미정비구간과 어항(漁港)의 정비에 대해서는 꾸준히 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개성을 살리면서 더욱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점과 발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가 더욱 요구되므로 책임

있는 직책에 여성의 등용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의 독창적인 발상을 살린 사업계획으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사업계획의 작성, 제품과 서비스의 선전, 창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상담, 창업을 위한 자금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여성이 육아와 병행하며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내 보육시설의 설치를 독려해 가겠습니다.

산업진흥책의 확충으로는 지금까지 시내에서 개최해 온 사업계획 발표회를 전국 규모의 전시회로 실시하여 기업의 기술제휴와 판로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젊은이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면접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취업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 배를 비롯한 이치카와시의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시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등 이치카와의 지역브랜드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시제(市制) 시행 80 주년을 기념하여 이치카와시의 심볼마크를 책정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그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소개하여 이치카와시의 인지도와 도시 이미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신년도의 중요한 시책으로 삼겠습니다.

맺음말

1 기제에는 힘든 행재정 운영 속에서 취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의 진척관리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채 등의 특정재원도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사업을 실시하고, 이치카와시를 약진시켜 갈 결의를 품고 2 기제의 시정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더욱 빛나게 하여 이치카와시를 방문했을 때, 근무처나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누구나가 아름다운 이치카와의 경관에 감동하고

편안함을 느낌으로써 한 번 살아 보고 싶고, 오래토록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수준 높은 지역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신년도의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대비 3.1% 증가한 1,311 억 엔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2%의 세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경기회복의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특별회계 전체로는 전년도 당초 대비 6.8% 증가한 881 억 9,800 만 엔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공영기업회계를 더한 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 대비에서 4.1% 증가한 과거 최고액인 2,213 억 200 만 엔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위주의 행정을 신조로 이치카와시 및 이치카와 시민을 위해 전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각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년도의 시정방침을 맺도록 하겠습니다.